중생 배추에게

시, 불교를 만나다

㉛ 중생심 : 나희덕의 '배추의 마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학장님, 너무해요."

"그래. 너는 무 해. 나는 배추 할게."

가까운 지인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할 때,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다. 네가 무를 하면 나는 배추를 하겠다는 일종의 '아재 개그'다. 이런 농담이 재미있는 걸 보면 나 또한 아재가 맞기는 맞는 것 같다.

배추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식재료다.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기후 이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국에 난리가 난다. 그야말로 가격이 폭등해서 김치가 금치로 둔갑한다.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를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밥도둑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배추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일이 내게는 끔찍하다.

이러한 배추를 통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멋진 시 한 편을 만났다. 나희덕 시인의 '배추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맛있는 김치의 재료인 배추에 우리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해주는 철학적 사유가 들어있었다. 아니, 시인이 의미를 캐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시인은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이것이 없다면 삶의 기쁨 하나가 사라질 것 같다. 그렇다면 배추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나희덕은 가수 안치환이 부른 '귀뚜라미'의 작사가로 알려져 있다. 높은 가지 위에서 한여름을 호령하는 매미에 묻혀 소외된 삶을 살다가 가을이 오면 '귀뚜르르' 하는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긴 작품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 시인의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이 오늘의 주제인 식물뿐만 아니라 곤충에게도 전해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그네를 타면서 노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어쩌면 주황색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운 시심이 자란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나희덕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가 당선돼 등단하게 된다.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시인은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를 비롯해 〈그곳이 멀지 않다〉, 〈어두워진다는 것〉 등 수많은 시집을 출간한다.

수상 경력도 화려해서 백석문학상과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수영문학상 등을 받았다.

현재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평론가는 그의 시를 가리켜 '따뜻함과 단정함의 미학'이라 부른다. 그 따스함이 오늘의 시 '배추의 마음'에도 배어 있다.

'배추의 마음'은 1994년 출간한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에 수록된 작품이다. 출판사에 의하면 이 책에 실린 59편의 시들은 "꽉 짜인 듯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많은 틈을 지니고 있는지, 그 일상을 꾸려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허점투성이인지를 안타까이 바라보는 시선은 섬세하며 성숙해진 시 세계를 보여준다"고 소개한다. 이 책에 수록된 '거스름돈에 대한 생각'의 일부분이다.

"삶은 왜 / 내가 던진 돌멩이가 아니라 / 그것이 일으킨 물무늬로서 오는 것이며 / 한 줄기 빛이 아니라 / 그 그림자로서 오는 것일까 // 왜 거스름돈으로서 주어지는 것일까"

거스름돈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시인에 의하면 "삶을 받은 것은 무언가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에 공짜로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통찰이 돋보이는 시다. 그렇다면 시인은 배추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았을까?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 하도 자라지 않아 /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 여름내 밭둑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 —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 —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배추가 건네는 풍요로운 삶의 의미
땅속 생명 품은 옛 절집 풍경 떠올라
생명 희생 자각 시 감사한 삶 시작돼

중생심이 진리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시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 문득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열반경〉의 말씀이 떠올랐다. 여기에서 중생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배추를 포함해서 무와 옥수수, 나무, 꽃, 귀뚜라미 등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라 자화자찬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九類衆生)이라 해서 중생의 종류를 9가지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若非有想非無想]' 중생도 등장한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어떤 생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 혹여 하나라도 빠트린 중생은 없는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분류인 것 같아 부처님이 왜 위대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법회를 마치면서 '가없는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衆生無邊誓願度]'는 서원으로 회향하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진리란 중생심이다[所言法者 謂衆生心]."

이 대목을 처음 보았을 때,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다.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이라는 삼독(三毒)에 중독돼 살아가는 중생의 마음을 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다. 비록 번뇌, 망상에 찌들어 살아가지만, 본래 중생은 불성을 갖추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뜻이었다. 앞서 언급한 〈열반경〉의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 진리라면 오늘의 주인공인 중생 배추 또한 본래는 부처 아니겠는가. 어쩌면 시인은 부처의 마음으로 배추를 바라본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씨앗을 뿌리고 농약도 치지 않고 정성껏 기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키웠는데 배추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인은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름내 밭둑을 걸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이는 부처의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의 언어다. 그러다 보니, 배춧속에 있는 벌레마저 마음이 쓰인다. 시인은 혹여 배추벌레가 그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할까 봐 꼭 동여매지도 못한다. 이것이 곧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다. 배추 또한 벌레에게 절반이나 먹히고도 속은 점점 깨끗한 잎으로 차오른다. 이런 배추의 마음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시인은 말한다. 배추를 기르면서 그 풀물이 포기를 묶어주는 사람의 소매에도 들고 말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모습을 상상하니, 옛 선사들의 절집 풍경이 떠올랐다. 혹여 땅속의 생명을 해칠까 봐 뜨거운 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던 그 고귀한 마음 말이다. 거기에는 내가 걷는 발걸음에 개미와 같은 작은 생명들이 다칠까 두려워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던 마음도 담겨 있었다. 모든 중생이 부처요, 그들의 마음이 곧 진리라는 철학적 사유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중생을 해치고 먹으면서 살아간다. 이들이 없다면 한시도 생존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절집에서 공양하기 전에 이런 게송을 독송하는 이유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이 몸을 길러 몸과 마음을 바로 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되는 말씀이다. 배추 한 포기에 스며 있는 천지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입은 호강하며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는 동물뿐만 아니라 배추, 무와 같은 식물에도 해당한다. 그들도 땅에서 뽑히고 칼에 잘려나갈 때 아픔을 느낀다. 시인의 지적처럼 마음이 있고,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식물 가릴 것 없이 이들을 해친다면 모두 살생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들의 희생 없이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배추의 풀물이 소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곱게 물들면 좋겠다. 〈끝〉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